

뉴노멀 시대의 생태지향적 교회를 위한 기독교 생태윤리*

- 이종성의 '공적 교회론'과 이감벤의 '생명정치론'을 중심으로

김 석 (장로회신학대학교, 객원교수)

I. 들어가는 말

II. 뉴노멀 시대의 생태지향적 교회론의 필요성

III. 춘계의 생태지향적 공적 교회론

1. 춘계의 공적 교회론 이해
2. 춘계 신학의 생태지향적 공적교회로서의 타당성과 의의

IV. 춘계의 생태지향적 공적교회 실천으로서 이감벤의 '생명정치론'

1. 이감벤의 '생명정치론'의 생태신학적 의미
2. 춘계의 '공적교회론'과 이감벤의 '생명정치론'의 생태윤리적 정립

V. 나가는 말: 춘계의 생태지향적 공적교회 구상을 위한 기독교 생태윤리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5.63.09>

* 본 연구는 제19회 춘계이종성신학강좌 (2024년 10월 2일)의 지원으로 발표한 글을 수정하였음.

• ABSTRACT •

Christian Ecological Ethics toward an Ecology-Oriented Church in the New Normal Era: Focusing on Jong-Sung Lee's Public Ecclesiology and Giorgio Agamben's Biopolitics

Adjunct Professor, Kim, Seok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escalating ecological threats and social imbalances necessitate a comprehensive response from theological and ethical perspectives, as warned by the IPCC Sixth Assessment Report. This study attempts to redefine the essential significance and theological mandate of the church in the transformative context of the 'New Normal' era, focusing on the concept of the ecologically oriented church. Based on Chun-Gye Lee Jong-seong's public ecclesiology and holistic theological methodology, this paper explores the church's renewed identity and practical strategies from an eco-ethical viewpoint under the redemptive horizon of church universality.

Specifically, by re-examining Agamben's theory of biopolitics as an analytical framework from a political theological perspective, the study critically analyzes the reality in which not only human lives but also the entire natural ecosystem are reduced to 'Bare Life' under mechanisms of power and control. Based on this analysis, it asserts that the church must fulfill its communal vocation to safeguard and restore God's creation order, and its duty must be carried out through concrete actions, securing 'ecological sovereignty' legally and institutionally as the ultimate practice of stewardship. Through interdisciplinary exploration connecting theology, eco-ethics, and political theology, this research aims to contribute to the deepening of Christian eco-ethical discussions by providing a theological foundation and ethical guidelines for the Korean church to become an ecologically oriented public church that meets the demands of the times.

Key words: New normal, Ecological ethics, Public church, Jong-Sung Lee, Biopolitics

I. 들어가는 말

코로나19 사태는 끝났으나, 인류는 이전으로 완전히 복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시대를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또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¹⁾라고 칭한다. 그렇다면 뉴노멀 시대는 한국교회에 어떠한 변화를 요청하는가? 뉴노멀 시대는 특히 종교에게 공공성의 확보를 강력히 요구한다. 뉴노멀 시대에도 종교의 본질적 요소(궁극적 실재에 대한 믿음, 교리, 예배, 공동체 등)는 지속되겠지만, 무너진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그 형태와 기준 등 공공성을 보장하는 변혁이 강력히 요청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대사회적 실천을 체계화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공적신학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 왔다. 공적신학(公共神學, Public theology)²⁾은 1970년대 마틴 마티(Martin Marty)가 교회의 공적 역할의 중요성을 신학적으로 부각하며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당시 로버트 벨라(Robert Bellah)가 공적 생활과 사회적 책임에서의 종교적 역할과 지위를 강조하며 시민종교(civil religion)를 언급했지만, 마티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를 더욱 강조하며 공적 신학을 제안했다. 그는 교회의 사회 참여 가치를 ‘공공 신학’으로 제시하며, 권위주의,

1)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용어는 경제 분야에서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확장되어 쓰인다. 과거에 비정상적이거나 예외적으로 여겨졌던 사례들이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나 표준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제 비대면 수업, 화상회의, 재택근무 또한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김민지 외, “뉴노멀 시대의 종교의 공공성 회복,” 『평화와 종교』 11(2021), 40.

2) 공공 신학은 연구자에 따라 ‘공공 신학’ 또는 ‘공적 신학’으로 혼용되어 사용된다. 의미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신학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는 공공신학을 사용하며 신학의 공적 역할을 강조할 때 공적 신학으로 사용된다. 나아가 이러한 공적 신학은 종교와 사회, 신학과 윤리, 교회와 정치 사이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중시하며, 교회가 사회의 긍정적 진보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Stackhouse, M. L., *Globalization and Grace*, 이상훈 역, 『세계화와 은총』 (성남: 복코리아, 2013), 143.

배타주의, 개인주의에 경도되기 쉬운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고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 신학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³⁾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교회는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뉴노멀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지지하고, ‘뉴노멀’의 정립을 다루는 공론장에 참여해 인류의 ‘공동의 선’⁴⁾을 추구해야 한다.

그동안 춘계 신학은 이종성 박사의 통전적 신학 자체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 성찰을 비롯한 다양한 신학적 주제를 발표⁵⁾하며 한국 신학의 자양분과 건강한 한국교회 형성을 위한 지침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춘계신학이 시대적 요청 앞에 더욱 충실하고 유효한 신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공적교회론적 층위의 강화가 필요하다. 뉴노멀 시대의 교회는 교회의 의미와 존재 목적을 공적교회로서의 정체성과 필요성으로 확인하고, 교회의 시대적 책임에 충실하게 응답하는 가운데, 구체적이고 윤리적 실천이 가능한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시대와 소통할 수 있고, 세상의 소망과 빛이 되는 공적교회로서의 비전과 방향성이 시급히 요청된다. 즉, 그동안의 춘계의 공적신학 연구⁶⁾를 비롯한 다양한 성과

3) Martin E. Marty, “Reinhold Niebuhr: Public Theology and the American Experience,” *The Journal of Religion* 54/4 (1974), 332-359.

4) ‘공동의 선(Common Good)’은 일반 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이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철학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이것은 모든 이들이 협력하여 좋은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신학적으로는 ‘공동의 선’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법과 이성을 매개로 모든 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반 은총’의 시각에서 추구된다. 또한, 윤리적 기초가 바탕이 된 ‘공동의 선’을 지향함으로써 모든 이에게 번영과 안녕을 보장하도록 하는 사회질서 변화를 주장한다. 송용원, 『하나님의 공동선』(서울: 성서유니온, 2020), 26.

5) 2002년에 시작된 춘계 이종성 신학강좌는 제1회 김명용 교수의 ‘통전적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그동안 춘계 이종성 생애 및 신학 자체에 대한 고찰뿐만 아니라 그의 통전적 신학의 의미, 그리스도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종말론, 교회론, 인간학을 비롯한 조직신학적 주제와 선교신학, 성서해석과 성서신학, 그리고 역사신학, 영성신학, 기독교교육, 예배설교, 교회음악, 윤리학 등 다양한 신학적 주제, 그리고 공공신학, 철학, 칼바르트, 16세기 종교개혁신학, 기독교인의 삶, 타문화와 타종교, 교회와 한국사회, 국가 등의 춘계 신학과의 관계와 같은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를 바탕으로 뉴노멀 시대가 요구하는 공적 교회의 요청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이에 따른 대사회적 공적 책임에 바르게 응답하는 교회론과 윤리로 준계의 신학적 깊이를 추구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뉴노멀’의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여 인류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의 생명을 아우르는 공적 교회로서의 생태지향적 교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회가 수행해야 할 기독교 생태신학 및 윤리의 방향 설정을 모색한다. 이는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인간 문제를 넘어 생태계 전체의 문제 해결이라는 확장된 공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해 두고, 먼저 준계 신학의 공적 교회론을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준계의 공적 신학의 성격을 이해함과 더불어 현대 생태신학적 함의를 찾아보려는 것이다. 이어서 아감벤의 ‘생명정치론’을 살펴 볼 것이다. 이것은 최근의 생태신학적 흐름이기도 한, 정치신학적 접근으로 현대 생태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로서, 이러한 접근은 준계 신학의 생태 이해의 실천적 차원의 확장적 사유와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하려는 것이다.⁶⁾ 본 연구는 기독교 생태신학 및 윤리 연구의 심화에 기여하며, 우리가 주시해야 할 현대 생태 위기의 본질이 생태계의 본유적이고 고유

6) 준계 신학강좌에서 이상은은 “공적 지평 속의 교회-준계 이중성이 말하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송용원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적 인격과 하나님 나라공적 신학”을 주제로 두 번의 공적신학에 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상은, “공적 지평 속의 교회 - 준계 이중성이 말하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최윤배 외 편저, 『준계 이중성 박사의 통전적 신학과 한국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8), 202-214.

7) 준계는 산과 바다에서 미와 침묵과 질서를 배우자며 자연에 대한 존엄과 존중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다. 이중성, “산을 보고 바다를 보자,” 『준계 이중성 저작전집』, 제38권: 『수상집: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서울: 한국기독교학술원, 2001), 362-64; 또한, 준계는 그의 저서, 『이야기로 푸는 조직신학』 19강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의 구속 사역은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를 위한 것임을 말한다. 이것은 복음이 인간의 영혼 구원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피조 세계가 생명과 살림의 세계를 향하고 있으며, 복음의 영역을 인간의 영혼 구원에 제한하는 신학은 아직 온전한 복음적 신학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중성, 『이야기로 푸는 조직신학』 (서울: 한국기독교학술원, 2001), 387.

한 가치를 생태 주권적 권리로 확립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권리 강화에 있음을 강력히 지지하는 논거가 될 것이다. 이것은 춘계 신학이 복음의 영역을 인간의 영혼 구원에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피조 세계의 살림으로 확장하는 통전적 관점, 즉 공적 교회론의 생태지향적 함의에서 비롯된다.

II. 뉴노멀 시대의 생태지향적 교회론의 필요성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학은 교회의 고유한 특징(notae)과 표징(notae externae)을 구별해 왔다. 고대 교회 이래 고백된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은 하나됨, 거룩함, 보편성, 사도성이며, 순수한 복음 선포와 복음에 합당한 성례(세례와 성찬) 집행은 교회의 두 가지 외적 표징(notae externae)이다. 여기서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은 교회 공동체가 속한 지역과 문화의 특성에 따라 다양성을 갖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거룩해지며 세상 전역으로 파송되고 보존된다. 무엇보다 교회의 보편성과 사도성에 대한 성찰은 교회의 증언과 봉사가 지구적 차원에서도 공적 효력을 갖춰야 함을 일깨운다.⁸⁾ 이는 춘계의 ‘공적 교회론’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궁극적 목적 아래 사회 변혁의 공적 책임을 지닌다는 이해와 맞닿아 있으며, 복음의 보편성이 단지 인간 영혼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창조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구속적 지평으로 확장됨을 의미한다. 교회의 이러한 특징과 표징을 인식할 때, 현대 공적 교회의 우선 과제는 인간 중심적인 공공 영역의 개념을 넘어 창조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공적 책임 의식의 확장이다. 다시 말해, 자연의 본

8) W. Lienemann, *Grundinformation Theologische Ethik*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8), 244.

래적 존엄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생태계의 고유한 생명 및 주권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요청된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 신학적 의미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인간만을 위한 무한정의 자유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분의 창조 세계를 대신하여 잘 관리하라는 위임받은 자유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리적 위임으로서의 자유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지금처럼 생명 파괴적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인간 자유의 신학적 제약을 명확히 인지하며, 철저하게 타자화된 생태계 생명에 대한 존엄성 인식이 요구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자유 권한의 지속이 가능하다. 즉, 인간의 고통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탄식(롬 8:22)에 귀 기울이고, 자연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의 고유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공적 책무가 교회에 부과되어 있다.⁹⁾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기후 및 생태 문제는 기후 위기의 수준을 넘어, 기후 재앙, 지구 공멸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하다. 그러나 이처럼 심각한 생태 문제에 비례하여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생태 위기의 현실은 복잡다단하며, 그 복잡성을 온전히 파악하는 것이 점차 난해해졌기 때문이다. 포스트 팬데믹 이후 기후 위기는 더욱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으며, 인류의 유일한 삶의 터전인 생태계는 끊임없이 파괴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2021년에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AR6)에서 더욱 명확히 제시된다. 이 보고서는 기후 변화의 주된 원인이 인간 활동임과 동시에, 인류가 온난화를 막기 위한 '결정적인 10년'에 직면했음을 경고하며, 기후 변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¹⁰⁾

9) 김형민, “공적 교회의 윤리적 책임,” 『기독교 사회윤리』 26 (2013), 110.

그런데, 이러한 기후위기의 재앙이 특히 대비에 취약한 사회적 집단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¹¹⁾ 이러한 작금의 생태 위기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는 더 이상의 생태계 파괴를 저지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공적 교회로서의 책임,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생태 신학적 성찰과 윤리적 역량을 요청받는다. 맥페이그의 주장대로 “환경적 위기는 신학적 문제이기에”¹²⁾, 기존의 인간 중심적 신학을 벗어나 피조 세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역설하는 공적 교회로서의 신학적, 교회론적 지평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즉, 현 시대의 시급한 과제인 생태 문제를 공적 교회 관점으로 바라보고, 인류 보편적 가치의 공감대 속에 세상과 바르게 소통하기 위한 신학과 윤리가 필요하다.

III. 준계의 생태지향적 공적 교회론

1. 준계의 공적 교회론 이해

기독교 신앙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의 아픔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기독교 정의는 서로를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상호인정의 관계를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는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 생태계 전체로의 확대를 요청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창조세계에서 인간의 권한과 지배력은 한층 강화되는 실정이다. 이를 심각하게 인식한다면, 창조 세계 속에 인간의 권한을 스스

10) IPCC,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11) D. A. Narjoko and E. Jotzo, “Survey of the Recent Developments,”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43/2 (2007), 143-169.

12) Sallie McFague, *A New Climate for Theology: God, the World, and Global Warming*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8), 18.

로 제한하고 창조 세계에 대한 좀 더 책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생태계 전체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기독교인의 실존에서 중요한 신앙적 요소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창조 세계에 대한 대리적 위임의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고 책임적 자세를 가질 때 가능하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생태계 포함)에 대한 사랑과 상호인정, 고난 받는 자들과의 연대라는 책임적 삶의 지향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과제며, 이러한 공적 교회 관점으로 춘계의 생태신학을 구성해야한다.¹³⁾

그러한 의미에서 먼저, 그의 공적 신학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춘계의 신학은 계시중심적 신학이라는 것이다. 그의 신학 전반에는 칼뱅과 바르트의 계시적 중심적 신학의 영향이 짙게 깔려있다.¹⁴⁾ 그는 부르너와 본회퍼와 같은 신학자들로부터도 이러한 계시중심적 교회론의 통찰을 얻고자 했다.¹⁵⁾ 이것은 그가 위로부터의 신학 방법론을 중요하게 이해한다는 의미다.¹⁶⁾ 역사의 문제도 하나님의 초월적 계시라는 관점으로 전체를 조명하며 해답을 제시한다. 이것은 그의 공적신학적 견해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¹⁷⁾ 춘계는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초월적 차원과 내재적 차원, 즉 계시와 응답이라는 두 상호 연관적 관계로 고찰한다. 그러나 이 상관관계도 초월적 계시가 우선하는 관계이다.¹⁸⁾ 그렇다고 한국인이라는 실존적 상황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13) 김형민, “공적 교회의 윤리적 책임,” 98.

14) 춘계의 계시중심적 신학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김도훈·박성규, 『미완성의 완성』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2), 33-36.

15) 이종성, 『조직신학대계 8: 교회론 II』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233-50.

16) 윤철호, “통전적 신학 방법론 - 춘계 이종성의 신학 방법론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7/1 (2015), 131.

17) 춘계 신학의 계시 신학의 중요성과 특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이상은, “공적 지평 속의 교회-춘계 이종성이 말하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최윤배·박성규·백충현 편저, 『춘계 이종성 박사의 통전적 신학과 한국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8), 199-226.

18) 이러한 구조는 춘계의 저서 『윤리학I』, 『윤리학II』에 잘 나타난다. 첫 번째 권은 ‘이론,

그는 하나님의 계시적 관점에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으며, 하나님의 뜻이 모든 공의의 중심임을 잊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계시 중심적 관점은 공통의 표준과 원칙에 따라 교회와 사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으로 연결된다. 그는 1981년 논문 “한국신학의 형성과 교회일치의 과제”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통된 표준이자 개혁의 기반임을 명확히 강조했다.¹⁹⁾ 이 기반 위에 춘계는 개혁의 일차적 사명은 교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반면, 그에 비해 사회는 상대적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이해한다. 물론 교회와 사회 모두 동일한 신학적 기반 위에서 검증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시대를 초월하여 계시 중심 신학과 말씀의 기반이 교회와 사회를 다루는 핵심적인 사유 체계임을 확고히 했다.

두 번째 기반은 교회와 사회관계의 전제로써 ‘인간’ 이해이다. 그는 인간을 교회와 사회에 동시적 존재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특히 사회 속에서 가정과 교회라는 두 가지 근본 제도 하에 존재하며, 사회와 국가, 세계 속에 사는 존재다.²⁰⁾ 하지만 그는 사회와 국가를 논함에 있어, 사회를 국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등, 국가와 사회의 정밀한 개념 정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범주상의 혼돈을 주는 한계성도 지닌다. 하지만 여기서 그의 강조점은 사회와 국가의 관계적 고찰보다 인간 개인으로부터 사회가 출발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써 교회와 사회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한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그는 바르트의 영향으로 초월적인 신 아래에서

두 번째 권은 “응답하는 인간”을 다룬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이상은, “공적 지평 속의 교회-춘계 이종성이 말하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222.

19) 이종성, “한국신학의 형성과 교회일치의 과제,” 『소논문집: 윤리와 토착화론』, 『춘계 이종성 저작전집』 제27권 (서울: 한국기독교학술원, 2001), 170-177.

20) 이러한 인간의 관계적 특징에 대해서는 윤철호의 연구가 잘 분석하고 있다. 윤철호, “통전적 신학 방법론-춘계 이종성의 신학 방법론을 중심으로,” 130.

인간을 이해한다. 그렇기에 그는 인간을 “응답하는 인간”, “자연과 초자연
을 같이 지닌 존재”로 파악한다.²¹⁾ 춘계는 이러한 인간의 초자연적 요소
를 ‘하나님의 형상론(Imago Dei)’에서 발견한다. 그는 인간의 초자연적
요소가 철학자들이 언급하는 이성, 양심, 종교심, 영혼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그것은 철저히 신학적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형식적 구조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물질적 자료로써 흙을, 생명적 근원으로써 ‘루아흐’를
가진 존재”로 이해한다.²²⁾ 그에게 있어 인간의 이 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 개인이 형성된다. 이러한 인간론은 인권에 대한 이해가 계몽
주의 이후 성립된 서구의 인문주의적 전통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
라,²³⁾ 오직 신학적 인간 이해라는 기반 위에 인간의 인권과 사회 정의가
논의될 수 있고, 사회의 모든 제도 역시 이러한 인간적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²⁴⁾ 그러므로 인간의 사랑 역시 일반적
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개념에 근거한다. 즉, 교회는 바로 이 ‘아
가페 사랑’에 입각하여 사회의 모든 문제 해결의 준칙으로 삼아야 한다.²⁵⁾
여기서 언급하는 ‘아가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초월
적인 사랑을 의미한다.²⁶⁾ 이것은 인간의 본유적 죄성에 대항하는 것으로,
현대사회의 불법과 부조리, 불공정 해결을 위한 윤리적 개념이다. 다시
말해, 그는 ‘위로부터의 신본주의적 접근’과 이에 응답하는 인간이라는 구
도를 통해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정립하였다.

21) 이종성의 신학적 인간학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이종성, 『신학적 인간학』, 126.

22) 위의 책, 127.

23) 이종성, “현대사회와 성숙한 교회,” 473.

24) 이상은, “공적 지평 속의 교회-춘계 이종성이 말하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228.

25) 이종성, “현대사회와 성숙한 교회,” 481.

26) Joseph Fletcher, *Situation Ethics: the New Morality*, 이희숙 역, 『상황윤리: 새로운 도덕』 (서울: 종로서적, 1989), 16.

세 번째는 ‘아래로부터’가 주가 되는 방식의 비판이다.²⁷⁾ 즉, 교회와 사회를 고찰함에 있어서 아래로부터, 혹은 인간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질문 방식에 춘계는 회의적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그의 저서 『윤리학 II』(1992)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여기서 이종성은 먼저 “사회복음주의”의 윤리를 진단한다. 그는 모리스(F. D. Maurice, 1805-1872)와 라우센부쉬(W. Rauschenbusch)와 같은 사회복음주의 신학과 운동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구원의 차원을 개인의 차원에 국한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운동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²⁸⁾ 하지만 춘계는 이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절대성 약화, 인간과 역사에 대한 낙관적 이해,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 보다 내재성 강조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성질을 휴머니즘적 운동 성격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그의 사회복음주의의 비판적 평가는 그가 공적 이슈나 사회 문제에 대해 인간으로부터의 방법, 즉 아래로부터의 방법과 인간중심적 신학으로 야기되는 문제 발생을 경계하는 것이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보다 우선할 수 없다. 춘계는 이렇게 계시중심적 신학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응답이라는 두 축을 통해 교회와 사회의 공적 관계를 이해하고 답을 추구했다.²⁹⁾ 이러한 춘계의 공적 교회 이해와 공적 교회 형성을 위한 개념들의 바탕에는 ‘복음’이 있고, 그 핵심에는 ‘삼위일체론적 그리스도론’을 통한 하나님 계시, 예수의 삶과 교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구속론적 이해가 담겨있다.

네 번째로, 춘계의 교회와 신학 체계는 교회, 사회, 국가 개념에 접근할 때 한편으로는 ‘사회 속 존재’인 ‘인간’을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27) 이종성, 『윤리학 II』, 『조직신학대계』 9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1993), 574.

28) Walter Rauschenbusch, *A Gospel for the Social Awakening: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Walter Rauschenbusch*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50), 45.

29) 이종성, 『소논문집: 윤리와 토착화론』, 15-22.

도,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과 밀접한 연관 속에 교회론을 전개한다.³⁰⁾ 그는 교회와 사회라는 양자의 관계에서 초월적 계시의 장이며 진리의 장으로서 교회를 우선시했다. 그에게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가깝고, 진리에 기초한다. 그래서 교회는 예언자적 자세로 대사회적 각성의 메시지를 선포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항상 견지해야 할 두 가지 신학적 방향성을 언급한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를, 옆으로 이웃과의 정당한 관계 형성이다. 만약 어느 한쪽으로 무게가 실린 교회라면 그 교회는 성서의 복음적 가르침에 벗어난 교회라고 말한다. 더불어 그는 교회와 사회 모두 공통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하나님 나라’라는 초월적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대한민국이라는 콘텍스트를 주목하고, 그 역사적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³¹⁾ 이와 같이 춘계가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신적이며 초월적이다. 이는 이 땅에서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역사로 성취되지 않는다.³²⁾ 또한,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역사 속에서 능력을 드러내고 역사와 교회를 변혁시키는 권세 혹은 힘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며

30) 춘계는 빌라도가 사약을 위해 남용된 공적 법정에서 ‘종교적 모습, 도덕적 모습, 이상주의적 모습을 보여 주신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마 11:29)을 바탕으로 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인간학’을 토대로, ‘높이’(영적 인격)와 ‘너비’(사회적 인격)와 ‘깊이’(개인적 인격)의 3차원을 고루 갖춘 그리스도인의 통전적 인간상을 제시한 바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이상은, “공적 지평 속의 교회 - 춘계 이종성이 말하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춘계 이종성 박사의 통전적 신학과 한국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8), 202-214.

31) 이 내용은 그의 『교회론』에서 “하나님 나라의 장으로서의 교회”라는 차원에서 다룬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이종성, 『조직신학대계 7: 교회론 I』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346.

32) 춘계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임제하는 것임을 밝힌다. 위의 책, 318.

모든 시간을 포괄하고 역사를 변화시킬 힘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우선적으로 교회에 임한다. 그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하지 않지만, 양자 간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한다. 그에게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인간 역사의 중보자며, 인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통로다.³³⁾ 여기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역사를 변혁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미래적 방향을 제시하면서, “구원”은 공적인 차원에서 조명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복음과 진리 위에 확고히 선 교회가 세상을 정의의 시각으로 관찰하고 문제 해결의 선두에 서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³⁴⁾ 따라서 그는 한국 사회를 변혁하는 길이 근본적으로 신학에서부터 시작됨을 명확히 밝혔다.³⁵⁾

정리하면, 춘계의 교회론은 계시중심적 신학을 기반으로 하며,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하나님의 초월적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라는 상호 연관적 구도로 정립한다. 그는 인간을 교회와 사회에 동시에 존재하는 존재로 규정하며,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진리의 장으로서 예언자적 자세로 대사회적 메시지를 선포하고 사회 변혁의 선두에 서야 할 공적 책임을 지닌다. 궁극적으로 그의 공적 교회론은 ‘하나님 나라’라는 초월적 목적을 향해 교회와 사회가 함께 나아가도록 이끄는 복음적 실천 체계이

33) 위의 책, 351.

34) 춘계는 이 글을 통해 교회는 복음의 정신으로 시대를 관찰하고, 교회가 사회구조의 선두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목회자 윤리와 교회내적 문제를 해결하는 자정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다음과 같은 면을 덧붙인다. 첫째, 인연이 아닌 신연의 선포, 둘째,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의 균형 있는 강조, 셋째, 예수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도덕의 추구, 넷째, 절대적 신관과 섭리성취의 강조, 다섯째, 복음화가 선행된 경제변혁의 외침. 이종성,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교회의 위치,” 『소논문집: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신학』, 『춘계 이종성 저작전집』 제22권 (서울: 한국기독교학술원, 2001), 123.

35) 이상은, “공적 지평 속의 교회-춘계 이종성이 말하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238.

다. 즉, 춘계의 교회론은 복음의 영역을 인간의 영혼 구원에 국한시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피조 세계의 살림으로 확장하는 ‘통전적 신학’의 관점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것이 곧 공적 교회론의 생태지향적 함의로 발현된다.

2. 춘계 신학의 생태지향적 공적교회로서의 타당성과 의의

그라프(F. W. Graf)는 그의 저서 『황혼에 접어든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대사회적 신뢰 상실에 기인한다고 진단한다. 이어서 그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위기에 처하게 된 일곱 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³⁶⁾ 물론, 그의 분석이 독일사회 속 교회라는 실존적 상황에 근거하지만 한국교회 상황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또한, 개혁교회 전통 속에 있는 교회라면, 이렇게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 즉 공적교회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이다. 역사적으로 이중 왕국론(Zwei Reichen Lehre)을 통해 정교 분리의 원칙을 고수한 루터 교회와 달리, 개혁 교회는 대사회적으로 교회의 공적 역할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³⁷⁾ 이러한 개혁교회 전통을 깊이 인식했던 춘계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되고 저술한 『교회론』에서 삼위일체론적 교회론, 그리스도론적 교회론, 성령론적 교회론, 종말론적 교회론의 특징을 체계화한다.³⁸⁾ 여기서

36) 그라프는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상실의 일곱 가지 이유를 교회가 대중매체를 통해 기독교적 지성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한 점, 신학교육이 약화된 점, 교회의 이름으로 요구되는 ‘도덕주의’의 한계, 교회의 민주적 역량 부족, 교회 자정능력의 부족,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 교회가 사회적 가부장주의에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F. W. Graf, *Kirchendämmerung. Wie die Kirchen unser Vertrauen verspielen* (München: C. H. Beck, 2011)

37)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 요리문답이나 20세기 ‘바르멘 선언’(Barmer Theologischer Erklärung)같은 신앙고백 전통은 공적 교회로서의 실존을 잘 보여준다. John, Leith, *An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78), 73-74.

38) 이종성은 『춘계 이종성저작전집8: 교회론(1)』 머리말에서 한국 교회를 비롯한 세계

그는 한국 교회의 상황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며,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를 말한다. 이점은 춘계의 교회론³⁹⁾이 공적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하는 신학이고, 교회의 공적 지평을 항상 염두에 둔 신학임을 의미한다. 그는 이러한 공적교회로서의 의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영역에서 살아야 하며 일해야 한다. 즉 교회와 사회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관심을 가지거나 무관심한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⁴⁰⁾ 이러한 인식은 그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백성의 신분으로 일본에 살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타국에서 해방을 목도한 개인의 실존적 체험이 강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또한 한국전쟁과 사회적 격변의 시대적 경험도 그에게 삶과 이격된 신학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강화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는 교회와 사회가 분리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교회와 사회, 양자 관계를 고찰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공적 교회에 관련된 입장은 신학의 이론과 실천,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포괄한 그의 『조직신학대계』를 비롯한 『춘계 이종성 저작선집 40권』 중 소논문과 설교집, 수상집, 곳곳에 발견된다. 이것은 춘계의 신학이 한국적 상황 속에서 서구 신학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한국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충실히 응답한 신학임을 말한다.⁴¹⁾ 이러

교회에 교회론 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론 정착의 필요성을 말하며 공적 교회의 견해를 전개한다.

39) 황기훈은 김명용은 이종성의 교회론에서 하나님과 인간 역사 사이에 수직과 수평의 조화로써 통전적 교회론을, 최윤배는 성서와 신학에서 균형 잡힌 일관성과 명료성의 유지로써 통전적 교회론을, 이상은은 공적 지평의 확대로서 통전적 교회론이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황기훈, “이종성의 교회론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2020.

40) 이종성, “대한민국의 운명은 명확하다,” 『춘계 이종성 저작선집』, 제35권: 『수상집: 조국과 동족과 나』 (서울: 한국기독교학술원, 2001), 258.

41) 김정형은 춘계의 토착화 신학을 다루면서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서구 선교사로부터 전해 받은 신학적 유산을 주체적으로 소화하면서 당시의 한국적 상황 속에서 고유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 김정형, “한국적 신학을 향한 여정 -

한 춘계 신학은 한국적 상황에서 교회 본질과 사명을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교회가 어떻게 실현하여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를 충실하게 성찰한다는 점에서 그의 공적 교회 의식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춘계의 신학은 신학의 본질을 지키는 동시에, 다양한 신학적인 방법과 내용에 대해 열린 신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간중심적 신학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간학문적 대화를 통해 시대적 문제 앞에 세상과 바르게 소통하는 가운데, 신학적 포용이 가능한 신학이다. 이것은, 춘계의 신학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가운데, 새로운 언어를 형성해 가고, 동시대의 담론과의 끊임없는 소통의 과정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담은 응답의 구성물로 발전을 추구하는 신학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을 구원 사역의 범위로 삼는 춘계의 생태지향적 공적교회론은 현대 생태 위기에 대해, 민감한 신학적 반응과 기독교 윤리적 책임의 자세로 응답하는 신학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대 생태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책임적 대화를 위한 새로운 신학적 언어와 사유가 필요하다.⁴²⁾ 이러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현대 생태위기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춘계 이종성의 3단계 토착화론에 대한 소고.” 장로회신학대학교 편, 『제14회 춘계(春溪) 이종성 신학강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8), 60.

42) 김철영은 제5회 춘계신학강좌에서 통전신학과 기독교윤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기독교적 삶이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희망이며, 그 나라에 대한 희망적인 삶의 언어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학의 본질을 지키는 동시에, 다양한 신학적인 방법과 내용에 대해 열려있는 춘계 신학의 특징을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좀 더 세심한 관심’을 요구하므로 방대함 연구 성과만큼,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과제의 필요성 또한 지적한다. 특히 김철영은 춘계의 통전적 윤리학이 신학과 윤리학의 관계에 대해서 조직적인 설명이 생략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둘 사이를 이어줄 ‘관계언어’를 분명히 하는 ‘변혁적 융합론’을 제시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김철영, “춘계 이종성의 통전적 신학과 윤리학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 믿음과 삶의 통전적 윤리학을 제안하며.” 장로회신학대학교 편, 『제5회 춘계신학강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7), 1-44.

응답하기 어려운 전통신학⁴³⁾의 비판과 해체를 요구한다. 즉, 끊임없이 시대와 소통하는 열린 신학으로서의 춘계 신학이 생태 문제에 대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신학으로 구성되려면, 간학문간의 대화와 작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기존의 인간중심적 전통신학의 비판적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기존의 교회론과 인간론이 지나치게 '통치'의 개념과 여성과 자연을 무시하며 지배 관계를 강화해 온 '가부장적 신학'이 생태 위기의 원인이었음을 반성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비록 춘계는 생태신학적 사유를 생태신학과 윤리로 체계화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신학 저술과 설교, 소논문, 수상집 곳곳에 피조 세계를 향한 인간의 공적 책임을 분명히 언급하는 등, 그의 생태 지향적 공적교회로서의 신학적 견해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⁴⁴⁾ 이러한, 춘계의 여러 저서와 논문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그의 생태 신학적 견해를 종합해 보면, 자연은 인간의 단순한 이용의 대상이 아니며, 인류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 창조 세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자연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임을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잘 돌보라는 청지기적 소명을 주셨으며, 인간의 무분별한 욕망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즉, 자연과 인간의 상호 의존성 속에 생태계의 보존과 보호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이를 위한 신학적이고 윤리

43) 김명용은 한국의 보수 신학적 전통과 오순절 신학 모두 오랫동안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차원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차원만 주로 강조하는 신학적 제한성을 비판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김명용, 『온신학의 세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7.

44) 이종성, 『조직신학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4), 125-140 (창조론 부분); 같은 저자, 『춘계 이종성 저작전집』, 제38권: 『수상집: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서울: 한국기독교학술원, 2001), 350-360 (수상집 부분); 같은 저자, 『조직신학대계』 9: 『윤리학 I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1993), 200-220 (윤리학 부분).

적 책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는 종말론에서도 창조 세계의 회복과 완성을 논하면서, 종말론의 신학적 이해가 단지 인간 구원의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임을 밝힌다.⁴⁵⁾ 또한, 몰트만의 영향을 받은 그는 교회 구원 사역의 범위가 전체 창조 세계임을 주장한다.⁴⁶⁾ 몰트만은 그리스도의 우주적 화해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성서 본문으로 골로새서 1장 20절⁴⁷⁾을 이야기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만물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의 사건으로 본다. 즉,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개인의 영혼 구원에 국한되지 않고,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을 포함하는 우주적 차원의 화해임을 강조한다. 그의 이러한 사유는 춘계의 생태 신학적 교회론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⁴⁸⁾ 이러한 춘계의 생태 이해는 교회의 구원사역이 인간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며, 교회의 구원사역이 인간을 포함한 피조 세계 전체로의 확대를 강조하는 신학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그의 공적 교회론의 사유를 통해 지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생태지향적 가치를 신학적으로 수용하며, 바람직한 공적 교회의 모델로서의 방향성과 신학적 정립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태지향적 공적 교회로서의 춘계 신학의 성찰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전 세계적 생태 위기 속에 세상과 바르게 소통하며, 인류 보편적 가치의 공감대 속에 생태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교회론적 지표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될 것이다.

45) 이종성, 『이야기로 푸는 조직신학』, 387.

46)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이종성 외, 『통전적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47)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 1: 20)

48) J. Moltmann, *Theology of Hope*, 광혜원 역, 『희망의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173-195.

IV. 촌계의 생태지향적 공적 교회 실천으로서 아감벤의 '생명정치론'

1. 아감벤의 '생명정치론'의 생태신학적 의미

코로나 펜데믹 이후 생태위기 문제의 성찰을 위한 출발로써,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추상적인 질문은 “생명정치⁴⁹⁾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구체화된다. 이 맥락에서 생명의 범위는 전통적인 인간 중심주의적 생태 사고를 넘어 전 우주적 생태계로의 확장을 요구한다. 이것은 자연이라는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⁵⁰⁾시켜 이해해 왔던 기존의 인간중심적 생명 이해에 대한 비판이다. 즉, 기존의 인간중심적 생명 이해에서 전 지구적 차원의 생명 이해로의 확장을 현시대가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감벤의 '생명정치론'은 현대 생명 이해의 문제를 극복하고, 작금의 생태 위기에 대한 전 지구적 생명 정치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매우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한다. 21세기의 생명은 그저 관념적 개념이나 추상적 의미라기보다 '생명정치'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명에 관한 신학적 논의 역시 현대 생명과학 담론과의 대화를 통해 기존의 생명 정의 방식을 반성하고 그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다시 말해, 신학은 지식의 생산과 소비가 자본주의적 이해관계에 의존하는 과학의 '정치적' 현실에 경각심을 주어 “예언자적 선포”를 수행해야 하며, 생명을 단순한 '생명 자본'의 문제로 환원하려는 시도에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촌계의 공적 교회로서의 신학적 이해와 방향성을 생

49) '생명정치'라는 용어는 푸코가 사용한 이래 여러 학자들에 의해 현대의 새로운 상황을 표현하는 주요한 용어가 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현철, “생명정치, 생명권력, 생명법,” 『법과사회』 51 (2016), 25.

50) Emmanuel, Levinas, *Totality and Infinity*, tran. Alponso Lingi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2005), 43.

태지향적 교회 모델로 정립하고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최근의 생태신학적 흐름이기도 한, 정치신학적 보완이 필요하다. 정치신학 담론의 핵심은 이전의 전통신학이 개인 차원의 구원,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신학이 기독교의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정치신학은 이러한 기존의 신학에서 벗어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타자와의 관계, 사회조직과 제도, 기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교회가 사회적 복음을 전하고 사회적 구원에 관심을 갖고,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다 풍성한 세계로 이끌어간다고 주장한다.⁵¹⁾

오늘날 생태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교리적, 철학적, 이념적 이해야 교회 차원의 캠페인, 의식 변화 등을 넘어선다. 올바른 교회론적 기반 위에 법, 제도, 정책과 같은 정치신학적 해법과 구체적인 윤리적 실천 및 사회적 연대의 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감벤의 ‘생명정치론’은 이에 부합하는 정치신학적 사유이다. 근대의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로 구축한 법의 보편적 지배 체제가 ‘예외성’이라는 구멍을 통해 정반대의 모습으로 변모한 것처럼, 이러한 예외성이 자연생태계 또한 정치적으로 ‘벌거벗은 생명’, 즉 ‘호모 사케르(Homo Sacer)’적 상태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생태문제에 대한 시대적 맥락 이해와 맞닿아 있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응답하려는 준계의 공적 교회의 이해와도 결을 같이 한다. 여기서, 아감벤의 ‘생명정치론’은 인간과 생태계를 ‘벌거벗은 생명(Bare Life)’으로 환원하는 통치 권력의 구조를 해부하는 ‘분석적 틀’로 기능하며, 준계의

51) 원래 정치신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신학의 한 흐름으로 구체적으로 분회 피와 같은 신학자가 나치와의 투쟁에 나선 것이 태동의 배경이고, 이를 본격적인 신학적 연구로 전개한 사람은 메츠(J. B. Metz)나 콕스 등이다. 이후 정치신학은 시대의 역사적 서사를 담아 해방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등으로 발전해 왔다.

공적 교회는 이러한 폭력에 맞서 청지기적 책임의 궁극적 실천으로 ‘생태적 주권’을 법적·제도적으로 확보하는 정치신학적 해법을 모색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아감벤의 ‘생명정치론’의 핵심 사유인 ‘생명’과 ‘주권’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 개념을 생태계 전체에 정치신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진정한 회복의 길이며, 춘계의 생태지향적 공적 교회론 정립을 위한 실천적 과정임을 밝히려 한다. 이러한, ‘생태적 주권’ 개념의 강조는 정치신학적 방법론을 통해 생태계를 도구화하는 권력 구조를 폭로하고, 춘계가 강조한 인간 권한의 자기 제한 및 피조물 존중 의무를 공적인 법과 제도로 관철하려는 패러다임 전환의 동력으로 기능할 것이다. 아감벤의 ‘생명정치론’은 과거 목숨을 박탈하여 유지되던 주권 권력의 통치가 오늘날에는 개인의 규율과 인구 조절을 통한 생명 정치의 통치성으로 전환되었다는 통찰을 제시한다. 이러한 생명 정치를 통한 주권 권력의 지배는 더욱 미시적이고 정교한 방식으로 작용하며, 우리 인류의 삶의 영역을 ‘수용소’와 다름없는 ‘벌거벗은 생명’의 공간으로 축소시킨다. 그 결과 ‘정치적 삶(bios)’을 박탈당하고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생물학적 삶(zoe)’에 머물거나 그마저도 확보하지 못하는 ‘벌거벗은 생명(Bare Life)’은 이제 특정 시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동시대 다수 개인의 삶을 불안과 위협에 노출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호모 사케르’와 같은 벌거벗은 생명의 예외적 상태는 우리 인간뿐 아니라, 자신의 ‘비오스’적 정치적 삶에 대한 주권 주장에 한계적으로 취약한 전 지구적 생태계에도 더욱 정교하고 미시적인 방식으로 작동하여 생명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인간과 생태계의 삶을 ‘벌거벗은 생명’으로 전략시키는 주권 권력의 통치는 인간에게는 억압이 아닌 자발적 순응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통치’ 실현을 통해 지속되지만, 생태계의 경우 자발적 순응 대신 인간 생명 기준의 환원주의적 폭력에 일방적으로 침묵을 강요당하며, 더욱 취약한 예외

적 상태에 놓인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이는 곧 생태계를 철저히 '벌거벗은 생명'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시기에 기독교 생태신학 및 윤리는 정치신학적으로 생태계에 대한 주권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해 더 심층적이고 예리한 비판과 성찰을 요구한다. 따라서 아감벤의 '생명정치론'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 생명을 포함한 생태계 모두를 동등한 위상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벌거벗은 생명'으로 축소하려는 생명 정치의 통치성에 대항하는 정치신학적 저항의 사유로 기능한다.

지금, 지구 공동체를 위협하는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는 종교를 초월하여 서로 공존하고 공생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청한다. 생태계 문제가 지구 전체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것은 파괴의 규모와 영향이 전 세계에 미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 또한 모든 인류의 근본적 자각과 일치된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공적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지구 공동체가 더 이상 인간중심적이거나 또는 특정한 국가나 이념으로 별개로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지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생태 위기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최우선 과제로 지각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생태 위기의 현실을 신학적·윤리적 문제로 정면으로 인식하고, 인간 중심적인 생태 접근법에서 벗어나, 모든 생태계가 고유한 주권을 지닌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는 전 지구적 차원의 생태 윤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제임스 러브록(James Lovelock)⁵²⁾도 이미 1970년대 후반에 생태계와 인류, 인류 사회라는 이 세 영역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각자를 새로운 생활양식(a new mode of life)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몸을 구성하는 전체의 일부로 여기면서 관계적 가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⁵³⁾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52)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이론을 창시한 영국의 화학자·의학자·생물물리학자·대기 과학자이다. 그는 1979년에 출간한 저서 『가이아: 지구상의 생명을 보는 새로운 관점』에서 지구를 하나의 작은 생명체로 보자는 가이아이론을 주창하였다.

아감벤의 생명정치론의 ‘생명’과 ‘주권’⁵⁴⁾ 개념을 생태계에 대한 ‘생명’이 해와 개념으로⁵⁵⁾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을 비롯한 생태계 전체 모두를 동일한 생명 위상으로 격상시키고, 그동안 생태계를 ‘벌거벗은 생명’으로 축소시키려는 기존의 모든 생명정치의 통치성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전 지구적 차원의 생태정치신학 담론이 요청된다.

이렇게 아감벤의 ‘생명정치론’적 사유를 통해 강조된 ‘생명’과 ‘주권’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여 생태계 전체의 주권적 가치 논의로 확립하기 위해선, 최근의 생태신학적 경향⁵⁶⁾에 초점을 맞추어 비인간 존재들의 가치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미적 실천,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의례를 계속 연구하고 만들어 가야한다. 우리는 분명 많은 중

53) James Lovelock, *Gaia: A New Look at Life on Ear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22.

54) ‘주권’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가장 주요한 권리’라는 뜻으로 법률적으로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 이러한 ‘주권’의 의미를 필자는 생태계의 주권 개념으로 사용하기 위해 장보맹의 ‘주권이론’과 갈 슈미트의 ‘주권’ 개념에 대한 두 이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아감벤의 정치신학적 관점에서의 ‘생명주권’적 통찰로 이해한다. 즉, ‘생태계’를 향한 ‘생명’과 ‘주권’ 개념의 재인식을 통해 생태계의 ‘본유적이고 고유한 가치’를 인간의 주권적 권리 차원인 생태 주권적 권리로 확립하고, 이에 기반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권리를 강화하는 의미로 ‘주권’ 개념을 활용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김석,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생태 위기’와 ‘생태주권’적 기독교 생태윤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기간행 박사학위논문, 2023, 15.

55) 분회퍼는 원래 자연적 생명은 궁극 이전의 것이었으나 그것은 궁극적인 것 -그리스도의 오심- 과의 바른 관계성 하에서 본래의 가치를 획득한다는 말한다.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자연적인 생명은 이제 궁극적인 것을 지향하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분회퍼의 생명에 대한 통찰은 아감벤의 ‘생명’과 ‘주권’에 대한 생명정치론적 사유의 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재길, “분회퍼의 윤리학에 나타난 생명의 개념과 선의 문제,” 『선교와 신학』 29 (2012), 252-271.

56) 최근의 생태신학은 유기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비유기체 사물에까지 관계적 사고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다. Jane Bennett, *Vibrant Matter: A Political Ecology of Things*, 문성재 역, 『생동하는 물질: 사물에 대한 정치생태학』 (서울: 현실문화, 2020), 15.

들 중 하나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사실을 자주 망각한다. 우리 인간이 보다 넓은 생태적 연결망에 우리가 의존하며 살아감에도 그걸 무시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예외적 존재라는 사실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생태계에 대한 ‘생명’과 ‘주권’에 대한 생태적 각성 위에서 오늘날 생태적 문명⁵⁷⁾의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신학적 작업이 필요하다. 즉,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생태계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동일한 생명적 가치로 존중받고, 생명 주권적 권리를 담지한 존재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하에 더욱 깊이 있고 구체적인 기독교 생태신학과 윤리적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아감벤의 통찰은 생태계 역시 권력 기제 아래 ‘벌거벗은 생명(Bare Life)’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분석 틀로서 활용되며, 교회는 이에 대항하여 생태계의 법적·제도적 권리 강화를 통해 해방을 실현하는 실천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

2. 준계의 ‘공적교회론’과 아감벤의 ‘생명정치론’의 생태윤리적 정립

1) 상호 관계성의 차원

오늘날 생태 위기는 근본적으로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무지, 그리고 인류의 이기심과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에 그 뿌리가 있다. 이 사실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해석은 물질문명의 풍요에 젖어 정작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본다. 따라서 생태위기의 근원도 바로 그 지점에서 찾아야 하며, 인간의 행위는 그렇게 행위를 규정하는 사회제도에 의해 매개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인간의 사회관계, 즉 사회제도를 먼저 주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생태문제에 대한

57) 오늘날 화이트헤드 철학은 John B. Cobb 등에 의해 ‘생태문명 (ecological civilization)’ 이론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양한 인문사회과학과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 방안으로서 정치신학과 윤리적 성찰이 중요하다. 특히 창조세계에 대한 인식과 이해마저도 인간의 자아(ego)를 우선으로 해석해왔던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변영주의와 한국의 기복신앙은 인간을 제외한 생태계 구성 주체들을 철저히 객체화시키면서 그들을 단지 도구적인 존재로 여기고 차별해 왔음을 반성해야 한다. 캐롤린 머천트⁵⁸⁾는 과거에 식민지가 무력으로, 무역품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으로, 노예로, 그리고 정령숭배 종교를 유대-그리스도교 신학으로 대체시킨 선교사들의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유지되었듯이, 오늘날 인간은 지구 공동체를 과학기술과 문명이라는 도구로 ‘인류세(Anthropocene)’⁵⁹⁾라는 교만으로, 그리고 인간중심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유지해 왔고 그 결과가 기후위기와 코로나 펜데믹과 같은 참혹한 현실의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⁶⁰⁾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 펜데믹과 글로벌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아 기독교는 창조세계에 대한 인식을 에고(ego)에서 에코(eco)로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⁶¹⁾ 이러한 문제의식은 준계의 생태 이해와 아감벤의 생명정치론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58) 미국의 진보적 생태여성주의자인 캐롤린 머천트는 ‘래디컬 에콜로지’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생태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동반자 윤리를 주창한다. 그는 인간과 비인간 공동체를 위한 최대의 선은 서로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인간과 생태의 상호관계성을 강조하면서, 이기적인 인간이 절제를 통해 인류의 다급한 필요와 함께 생태계의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생태중심적 윤리와 인간중심적 윤리를 통합을 주장한다. Carolyn Merchant, *Radical Ecology* (New York: Routledge, 2005), 90.

59)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는 제안된 지질시대로, 홀로세(현세) 중에서 인류가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 시점부터를 별개의 세로 설정한 개념이다. 정확한 시점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대기의 변화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산업 혁명이 그 기준이다. 대다수의 지질학자들은 인류세를 별개의 지질 시대로 볼 수 있을지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지질학회에 속한 다른 학자들은 언젠가 인류세가 독립된 지질 시대로 공인될 것으로 전망한다. Donna Haraway,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6), 30.

60) Carolyn Merchant, *Radical Ecology*, 59.

61) 박용범, 『기독교 사회생태윤리』, 262.

있으며, 인간과 생태계 상호 관계성이라는 차원에서 사유하게 한다. 준계의 생태 이해는 인간중심적 신학에서 벗어나 모든 창조 생태계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유기적 전체성, 즉 자연과 인간, 신이 하나의 유기체적 생태계를 이루며, 각 구성원은 서로에 대한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는 사유라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준계의 생태 이해는 인간과 자연, 사회가 상호의존적이며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는 존재론적 사유를 펼친다.⁶²⁾ 이러한 인식은 인간 존재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전체 생태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믿음에 근거를 둔 일반 생태학의 주장과도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⁶³⁾ 그리고 이러한 준계의 생태론적 교회를 위한 이해와 윤리는 앞서 보았듯이 아감벤의 정치신학적 실천사유에 담긴 상호 책임성의 윤리로 구체화될 수 있다.

2) 생태계의 주권적 가치와 권리의 차원

준계의 생태 이해는 모든 생태계의 고유한 가치와 권리를 인정하고, 인간 중심적 신학을 넘어서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준계의 생태 신학적 사유를 지금의 뉴노멀적 가치에 부합한 생태신학적 교회론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인간처럼 정치적 주체로 인식함과 더불어 별거벗은 생명으로 이해하는 아감벤의 생명정치론적 통찰의 보완이 필요하다. 즉, 국가와 권력구조가 인간의 생명을 통제하고 관리하듯, 하나님이 부여한 고유한 생명을 지닌 생태계도 '별거벗은 생명'이라는 법적, 정치적 권리로부터 배제된 상태로 통제되고

62) 준계의 소논문집 『윤리와 토착화론』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윤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창조세계를 보존하는 데 있다”며, 인간중심적 기독교윤리를 벗어나, 생태계를 향한 공적책임과 상호관계성의 생태윤리적 견해를 나타낸다. 이종성, 『윤리와 토착화론』 (서울: 한국기독교학술원, 2001), 65.

63) Patrick, Curry, *Ecological Ethics: An Introduction* (Malden, MA: Polity Press, 2011), 57.

관리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권’ 개념에 주목해서, 주권자의 의미를 법을 집행하는 동시에 법의 예외를 결정하는 권력을 가진 존재, 생명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방식의 존재를 생태계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신학적 성찰이 준계의 생태신학적 교회론에 필요하다. 이러한 신학적 작업은 우리의 신학적 시야를 기존의 인간중심적 생명 이해에서 하나님의 시각인 우주적 생명 이해로 그 지평을 더 넓히려는 시대적 요청의 응답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시각은 윤리적 행동과 판단이 결국 주권과 연결되며, 주권자만이 판단과 처벌의 가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치신학적 통찰을 제공한다. 이는 주권이 없는 존재는 윤리적으로 존중받거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실령 윤리적 가치가 인정되더라도 그 존재는 윤리적 판단을 내릴 주권자에게 언제나 종속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권’ 개념과 문제의식이 생태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결국 생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윤리적 해법을 제시할 수 없고, 오히려 현 체제의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에 그칠 수 있다. 아감벤적 표현으로 생태계도 인간처럼, 각자 고유한 존재임에도 주권적 가치⁶⁴⁾를 잃어버린 채 생물학적 생명만 남은 ‘호모 사케르’, 즉, “벌거벗은 생명”이 될 운명과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 생태계도 우리 인간처럼 자신들의 고유한 생명 권리를 가진 주권적 존재로 인정하고 그들의 가치를 격상시켜 나가야 한다는 인식은 준계의 생태론적 교회 이해의 실천적 차원의 의미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64) 생태계의 권리를 설명하는 비슷한 용례로, ‘동물권’, ‘식물권’이 있고, ‘자연권의 권리(환경 소송에서 동식물의 권리를 이른다)’라는 용어가 쓰인다. 참고로, 동물권(animal rights)은, 인간 동물과 같이 비인간동물 역시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확대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지니고 있다는 개념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동물권”,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동물권> (최종접속일: 2022. 12. 16.).

3) 인간의 책임성과 생명정치 실현의 차원

준계 신학의 인간론은 생태계에 특별한 책임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보며,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청지기적 존재로 이해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준계의 생태 이해는 인간의 생태계를 향한 권력의 남용을 인정하지 않으며 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윤리적 책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측면은 아감벤의 생명정치론적 사유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아감벤의 정치신학적 사유는 인간이 권력을 통해 생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간의 정치권력과 구조가 인간의 생명을 핍박하고 차별하는 방향으로 오용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사유이다. 이러한 아감벤의 사유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준계의 생태론적 교회 이해의 정치신학적 실천을 위한 매우 유용한 이론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고유한 권리와 가치를 위한 법의 보호와 인간의 정치적 주권 보장이 생태계 차원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통찰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감벤의 ‘생명정치론’의 생태신학적 전개는 원래, 인간의 생명과 주권을 주제로 출발한 사유라는 점을 유의하면서, 생태계만의 고유한 특징 이해와 생태계의 고유한 가치와 권리에 대한 주권적 보호 차원을 이해하면서 적용하고, 확장된 생태적 교회론을 위한 신학적 사유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준계의 신학과 공적교회론은 기존의 전통적인 신학의 경계를 확장하고, 현대 사회와 문화 속에서 신학이 더욱 실제적이고 포괄적 적용이 가능한 열린 신학이다. 이것은 준계 신학이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신학임을 의미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준계의 생태 이해도 생태계 자체의 고유성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정치신학적 실천인 생명정치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신학이어야 한다. 여기서 ‘생명정치’는 주권권력의 억압적 통치에 대한 저항과

더불어 주권권력의 대리인에 의한 법의 통치, 그리고 오늘날 ‘자기-통치’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그 해법을 함께 전개해 나가야 한다. 오늘날 생명정치는 ‘타자’를 더 이상 주체의 바깥에 거주시키지 않는다. 이 시대는 ‘타자’가 곧 ‘자기’가 되는 시대, 생명통치의 메커니즘에 의해 누구나 예외적 상태에 의한 ‘벌거벗은 생명’으로 전락될 수 있는 시대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러한 아감벤의 ‘생명정치론’적 통찰을 준계의 생태적 교회론을 위한 신학으로 적용하면 자연생태계 또한 벌거벗은 삶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주권적 예외 상태’라는 관점으로 생태신학적 교회론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근대의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로 구축한 법의 보편적 지배 체제가 ‘예외성’이라는 구멍을 통해 정반대의 모습으로 변모한 것처럼, 이러한 예외성이 자연생태계 또한 ‘벌거벗은 생명’, 즉 ‘호모 사케르’적 상태로 이해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장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 생태 위기를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적 생태 위기로 인식하고, ‘생명정치론’적 사유로 이 시대의 생태론적 공적교회를 위한 근본적 해법을 찾는 것은 준계 생태신학의 ‘생명정치’ 실현을 위한 진진된 신학적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V. 나가는 말: 준계의 생애지향적 공적교회 구상을 위한 기독교 생태윤리

가다머는 “현재의 지평은 끊임없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으며, 현재의 지평은 과거가 없이는 결코 형성될 수 없고, 과거와 현재의 상호융합은 부단히 진행되며, 그러한 상호융합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부단히 합쳐져서 새로운 타당성을 확보한다”⁶⁵⁾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준계의 공적

65) Hans-Georg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Berlin: Akademie Verlag, 2011), 320.

교회론은 열린 신학으로써 현재의 지평에서 현대 신학을 비롯한 세상 학문과의 부단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신학적 토대를 견고히 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시대적으로 타당한 신학이다.⁶⁶⁾ 이러한 인식 하에 본 논문은 춘계의 신학과 교회론에서 공적 교회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고 정리하며, 뉴노멀 시대의 공적 이슈인 기후위기를 비롯한 생태위기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생태지향적 교회에서 찾고자 했다. 즉, 춘계가 말하는 신학과 교회론의 공적 의미와 생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주목할 현대 생태 위기와 문제의 핵심이 생태계의 ‘본유적이고 고유한 가치’를 생태 주권적 권리로 확립하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권리 강화에 있음을 아감벤의 ‘생명정치론’의 신학적 사유로 고찰하고 수용하면서 이 시대의 올바른 생태지향적 공적 교회를 위한 기독교 생태윤리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한 기후 변화와 생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생태계를 향한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생태계의 권리 보호가 곧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실체적 권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50 탄소 중립 선언과 같은 정책과 더불어 실질적인 법률 입안 및 집행을 통해 자연의 권리, 곧 ‘생태계의 주권적 권리’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원의 실질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필자는 춘계의 생태론적 공적교회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아감벤의 생명정치론적 사유로 고찰하면서, 생태계 전체의 상호 관계성에 대한 깊은 인식, 생태계 생명의 주권적 가치와 권리 보호, 생태계 전체의 청지기로

66) 김철영은 “춘계의 통전적인 신학과 윤리는 거대한 담론 형식으로 신학적 관심과 주제를 방대하게 다룰 수 있다는 큰 강점이라고 평가하며, 더욱 더 통전적 신학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기독교윤리의 과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철영, “통전적 신학과 윤리학 연구,” 25.

서의 인간의 책임성 강조와 이에 따른 생태계를 향한 정치신학적 생명정치의 실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인간중심적이고 전통적인 신학패러다임을 생태적이고 유기체적 윤리로 전환하고 생명 주권에 대한 이해를 모든 생태계의 생명 차원으로 확장함으로써 생태적 공적교회를 위한 신학과 윤리적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춘계의 생태론적 공적교회의 실천적 차원으로 아감벤의 ‘생명정치’론 사유와 접목하려는 연구는 철학적, 인문학적으로 보다 세상과 유연하게 생태학적인 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보다 발전적인 기독교 생태신학과 윤리 구상의 토대 마련을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우주적 생태계의 진정한 창조질서의 회복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이론적이고 실천적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러한 춘계의 생태신학적 공적교회론의 신학적 함의와 아감벤의 정치신학적 통찰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태계의 고유한 위상과 권리를 피조 세계 전체가 동등한 생명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이해하고, 생태계를 인간과 동일한 위상의 법적, 제도적 차원의 권리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생태 위기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생태 신학적 깨달음을 바탕으로 생태신학적 공적교회는 이론과 사유를 넘어 생활과 문화로 뿌리내리고 의식의 차원에서 삶의 차원으로 육화된 생태 신학적 윤리를 실천하며, 인간중심문화의 끝없는 파괴와 죽음의 행진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독교적 응답을 계속 모색해 나가야 한다.⁶⁷⁾ 그러한 의미에서 춘계 신학의 ‘공적 교회론’이 지향하는 창조 질서 회복과 우주적 구원

67) 김은혜,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에 대한 신학적 성찰: 새로운 인간주의를 향하여,” 『장신논단』 36 (2009, 12), 186.

론적 실천으로서, 자연 생태계에 고유하게 부여된 권리, 즉 생명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한 ‘주권적 존재’로서 생태계의 가치를 격상시키는 것은 기존 체제 순응적 윤리 행위의 허위성을 드러내고, 생태계를 ‘벌거벗은 생명(Bare Life)’으로 전락시키는 생명정치적 폭력의 순환에서 마침내 해방될 수 있는 전복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생태계의 ‘주권’ 개념에 기반한 생태윤리는 현 시대의 생태 위기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기존의 생태 정치신학적 접근과 차별화하여, 전 지구적 생태 위기 문제를 ‘생명의 통치성’과 ‘주권’의 문제로 파악하고, 생태계의 ‘생명’과 ‘주권’ 관점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것은 생태중심주의적 태도라기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이 스스로 권한을 제한하고 모든 피조물의 존엄성을 회복하려는 ‘칭지기 윤리’의 급진적 실천이며, 피조 세계 전체의 ‘살림’을 향한 기독교 구원론의 확장된 이해이다. 다만, 아감벤의 생명정치론이 본래 인간 정치공동체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생태 영역으로 확장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해석학적 비약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밝혀둔다. 끝으로, 이러한 준계의 생태론적 공적교회 구상을 위해, 앞으로도 생태계의 ‘생명’과 ‘주권’ 개념을 강조하고, 생태계의 고유한 주권적 권리와 가치 보호라는 정치신학적 차원에서 심화된 생태신학과 윤리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고재길. “본회퍼의 윤리학에 나타난 생명의 개념과 선의 문제.” 『선교와 신학』 29 (2012), 252-71.
- 김도훈. 『생태신학과 생태영성』.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9.
- 김도훈·박성규. 『미완성의 완성』.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2.
- 김민지·안연희. “뉴노멀 시대의 종교의 공공성 회복.” 『평화와 종교』 11 (2021), 39-58.
- 김석.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생태 위기’와 ‘생태주권’적 기독교 생태윤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2023.
- 김은혜. 『생명신학과 기독교 문화』. 서울: 쿠펜출판사, 2006.
- _____.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에 대한 신학적 성찰: 새로운 인간주의를 향하여.” 『장신논단』 36 (2009), 85-106.
- 김정형. “한국적 신학을 향한 여정 - 춘계 이종성의 3단계 토착화론에 대한 소고.” 장로회신학대학교 편. 『제14회 춘계 이종성 신학강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8.
- 김철영. “춘계 이종성의 통전적 신학과 윤리학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 믿음과 삶의 통전적 윤리학을 제안하며.” 장로회신학대학교 편. 『제5회 춘계 이종성 신학강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7.
- _____. “춘계 이종성의 통전적 신학에서 신학과 철학의 관계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48/1(2016), 201-224.
- 김형민. “공적 교회의 윤리적 책임.” 『기독교사회윤리』 26 (2013), 95-120.
- 김현철. “생명정치, 생명권력, 생명법.” 『법과사회』 51 (2016), 5-33.
- 송용원. 『하나님의 공동선』. 서울: 성서유니온, 2020.
- 윤철호. “춘계 이종성 박사의 신학적 인간학에 대한 고찰.” 장로회신학대학교 편. 『제8회 춘계 이종성 신학강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2.
- _____. “통전적 신학 방법론 - 춘계 이종성의 신학 방법론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7 (2015), 79-109.
- 이상은. “공적 지평 속의 교회 - 춘계 이종성이 말하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한

- 국조직신학논총」50 (2018), 55-80.
- _____. “공적 지평 속의 교회 - 춘계 이종성이 말하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장신논단』49/2 (2017), 217-242.
- 이종성. 『조직신학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4.
- _____. 『조직신학대계 1-1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1993.
- _____. 『춘계 이종성 저작전집 1-40』. 서울: 한국기독교학술원, 2001.
- _____. 『이야기로 푸는 조직신학』. 서울: 한국기독교학술원, 2001.
- 이종성 외. 『통전적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 최윤배 · 박성규 · 백충현. 『춘계 이종성 박사의 통전적 신학과 한국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8.
- 황기훈. “이종성의 교회론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2020.
- Agamben, Giorgio.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Trans. Daniel Heller-Roaze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 _____. *The coming communi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3.
- _____. *The kingdom and the glory: for a theological genealogy of economy and governmen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1.
- _____. *The omnibus homo sac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7.
- _____. *Potentialities: Collected essays in philosophy*. Trans. Daniel Heller-Roaze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 _____. *Agamben and politics: A critical introduc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4.
- Badiou, Alain. *Saint Paul: The foundation of universalism*. 현성환 역. 『사도바울: 제국에 맞서는 보편주의 윤리를 찾아서』. 서울: 새물결, 2008.
- Bennett, Jane. *Vibrant matter: A political ecology of things* 문성재 역. 『생동하는 물질: 사물에 대한 정치생태학』. 서울: 현실문화, 2020.
- Cochet, Yves. *Pétrole apocalypse*. 배영란 역. 『불온한 생태학』. 서울: 사계절, 2009.
- Curry, Patrick. *Ecological ethics: An Introduction*. Malden, MA: Polity Press, 2011.

- Fletcher, Joseph. *Situation ethics: The new morality*. 이희숙 역. 『상황윤리: 새로운 도덕』. 서울: 종로서적, 1989.
- Gadamer, Hans-Georg. *Wahrheit und Methode*. Berlin: Akademie Verlag, 2011.
- Graf, F. W.. *Kirchendämmerung: Wie die Kirchen unser Vertrauen verspielen*. München: C. H. Beck, 2011.
- Haraway, Donna.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6.
- IPCC.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 Lemke, Thomas. *Biopolitik zur Einführung*. 심정보 역. 『생명정치란 무엇인가』. 서울: 그린비 출판사, 2015.
- Levinas, Emmanuel. *Totality and infinity*. Trans. Alphonso Lingi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2005.
- Lienemann, W. *Grundinformation Theologische Ethik*.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8.
- Lovelock, James. *Gaia: A new look for life on earth*.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Martin E. Marty, "Reinhold niebuhr: Public theology and the american experience." *The Journal of Religion* 54, no. 4 (1974), 332-358.
- McFague, Sallie. *A new climate for theology: God, the world, and global warming*. 김준우 역. 『기후변화와 신학의 재구성』.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8.
- McFague, Sallie. *A New Climate for Theology: God, the World, and Global Warming*.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8.
- Merchant, Carolyn. *Radical Ecology*. New York: Taylor and Francis, 2005.
- Moltmann, Jürgen. *Theology of hope*. 광혜원 역. 『희망의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 Rauschenbusch, Walter. *A gospel for the social awakening: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Walter Rauschenbusch*.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50.
- Stackhouse, M. L. *Globalization and grace*. 이상훈 역. 『세계화와 은총』. 성남: 북코리아, 2013.

“동물권.”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동물권>. 최종접속일: 2022. 12. 16.

논문투고일: 2025년 11월 12일

심사개시일: 2025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07일

• 국 문 초 록 •

현재 가중되는 생태적 위협과 사회적 불균형은 IPCC 6차 보고서가 경고하듯 신학적 및 윤리적 관점에서 전면적 대응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뉴노멀 시대라는 변혁적 상황에서 교회의 본질적 의의와 신학적 책무를 생태지향적 교회로 다시 규정하고자 한다. 본고는 춘계 이종성의 공적 교회론과 통전적 신학 방법론에 기반하여, 교회 보편성의 구속적 지평 아래 생태윤리적 시각에서 교회의 새로운 정체성과 실천 방안을 탐구했다.

특히 아감벤의 생명정치론을 정치신학적 ‘분석적 틀’로 재조명함으로써, 인간의 삶뿐 아니라 자연 생태계 전반이 권력과 통제 기제 아래에서 ‘벌거벗은 생명(Bare Life)’으로 전락하는 실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에 근거해,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복원하는 공동체적 소명을 완수하고, 청지기적 책임의 궁극적 실천으로서 ‘생태적 주권’을 법적·제도적으로 확보하는 실질적 행동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본 연구는 학제적 모색을 통해 한국 교회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생태지향적 공적 교회로 서기 위한 신학적 토대와 윤리적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기독교 생태윤리 논의의 심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뉴노멀, 생태윤리, 공적 교회, 춘계 이종성, 생명정치
